

Diversification of the Private Market Investment

사모 투자의 다양화

6th Annual
5th December, 2013
The Plaza, Seoul, Korea

Invitation of the 2013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

친애하는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 여러분을 2013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에 초대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컨퍼런스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을 잊지않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013 thebell Korea PE Forum'은 '사모 투자의 다양화 (Diversification of the Private Market Investment)' 라는 주제로 12월 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큰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2013 thebell Korea PE Forum'은 개별 스피치보다 패널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발언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콘텐츠의 백화점 식 구성을 탈피, 이슈 중심의 논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 '2013 thebell Korea PE Forum'은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한국을 대표하는 LP 기관의 투자책임자들이 대거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에 대한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중견급 LP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 이들 중견 LP 기관들의 참여 기회를 크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 '2013 thebell Korea PE Forum'은 PE 산업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내년 투자 전망 등 일반적인 주제는 물론, 올해는 특별히 CO-Investment, GP-LP Interest Alignment, 투자 후 경영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2013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은 포럼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적극 지원합니다.

최대 100여 명까지 수용 가능한 티룸(tea room)을 운영합니다.

- 메인 컨퍼런스 장 옆에 마련될 티룸은 포럼 참가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티룸 내에 영상시설을 갖추어 컨퍼런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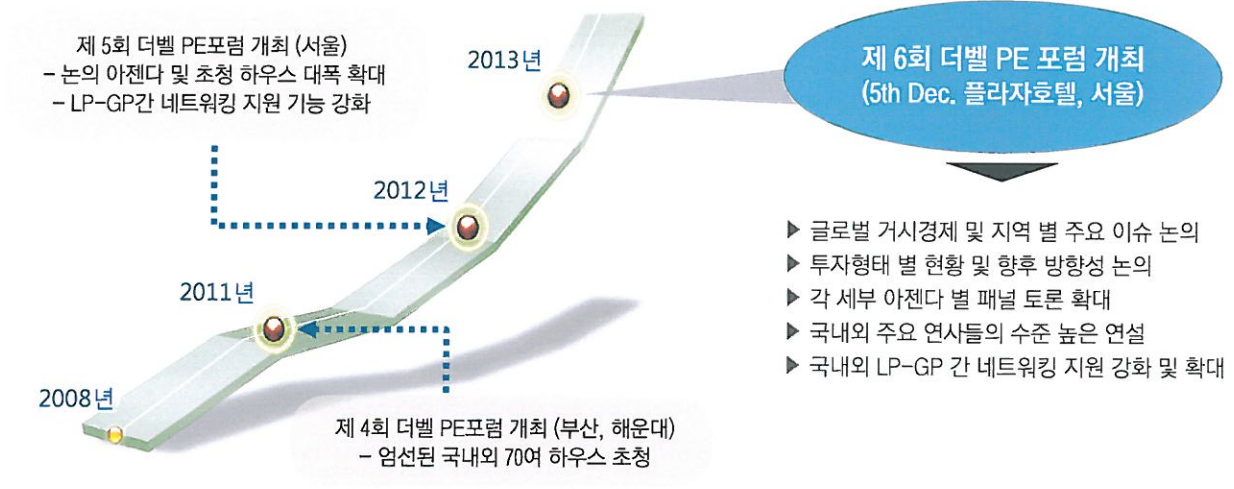
카테일 파티와 디너(Dinner) 세션이 마련됩니다.

- 컨퍼런스가 끝나면 곧이어 스탠딩 카테일 파티와 디너세션이 마련됩니다. 카테일 파티는 LP - GP간 네트워킹을 넓힐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카테일 파티는 포럼 참가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소는 메인 컨퍼런스 장 밖 복도입니다.
- 디너는 한정된 테이블 준비 관계로 특별히 초청받은 분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정 인원은 대략 100명 내외입니다.
- 한국의 주요 LP의 투자책임자들이 주빈으로 초청되며, GP 중에서는 스폰서십 제공사와 연사(Speaker), 토론자(Panelist) 등이 우선 초청받게 됩니다. 그 외, 포럼 참여신청서 제출 시 디너 참석 희망란에 기재하신 분 중 약간 명을 추가 초청할 수 있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가비를 청구합니다.
- 별도의 비즈니스룸을 운영합니다. 비즈니스룸 이용은 사전에 신청한 분께 한하며, 1시간(1시간 추가 연장 가능)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룸 내에는 구획된 부스가 설치돼 있으며, LP와 GP의 1대1 미팅 장소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스폰서십 제공사에 한해 LP-GP 1대 1 미팅을 주선받기 원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희망 시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더벨의 어레인지를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 일시: 2013년 12월 5일 09:00 ~ 21:00
- 장소: 대한민국 서울 플라자 호텔
- 티룸: OPEN 09:00 ~ CLOSE 14:30, 서브 컨퍼런스 장, 누구나
- 카테일 파티: 17:30 ~ 18:30, 메인 컨퍼런스 장 밖, 누구나
- 디너 세션: 18:30 ~ 21:00, 메인 컨퍼런스 장, 초청자에 한함 (Invitation Only)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은 한국 PE 시장의 태동기부터 시장의 조력자로서 함께해왔고, 시장의 나침반으로 시장이 나아가갈 방향성을 제시해왔으며, 2008년 첫 개최 후 올해로 6회 째를 맞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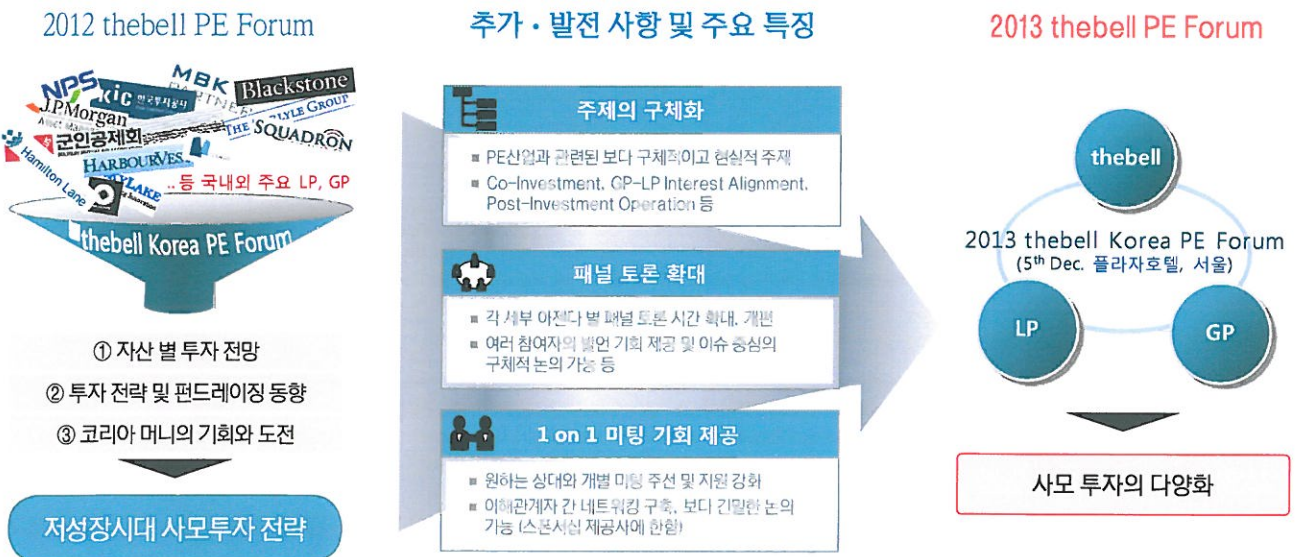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의 발자취]



한국 PE 시장 내 주요 이슈 논의 및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시장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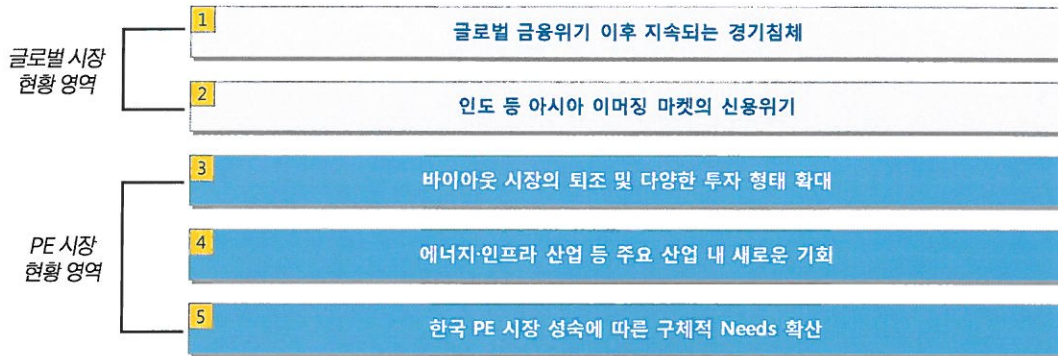
2013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은 '사모 투자의 다변화 (Diversification of the Private Market Investment)' 라는 주제로 2013년 12월 5일 개최됩니다.

[2013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 주요 특징]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및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신용위기 등으로 투자 전략 다변화, 새로운 기회 확산 및 세분화된 방법론 등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자본 시장 및 PE 시장 현황]



2013 더벨 PE 포럼을 통한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별 발전적 논의 필요성 증대

한국 PE 시장은 빠르게 확대됐으며, 2013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은 이러한 한국 PE 시장 내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한국 PE 시장 분석 및 2013 더벨 PE포럼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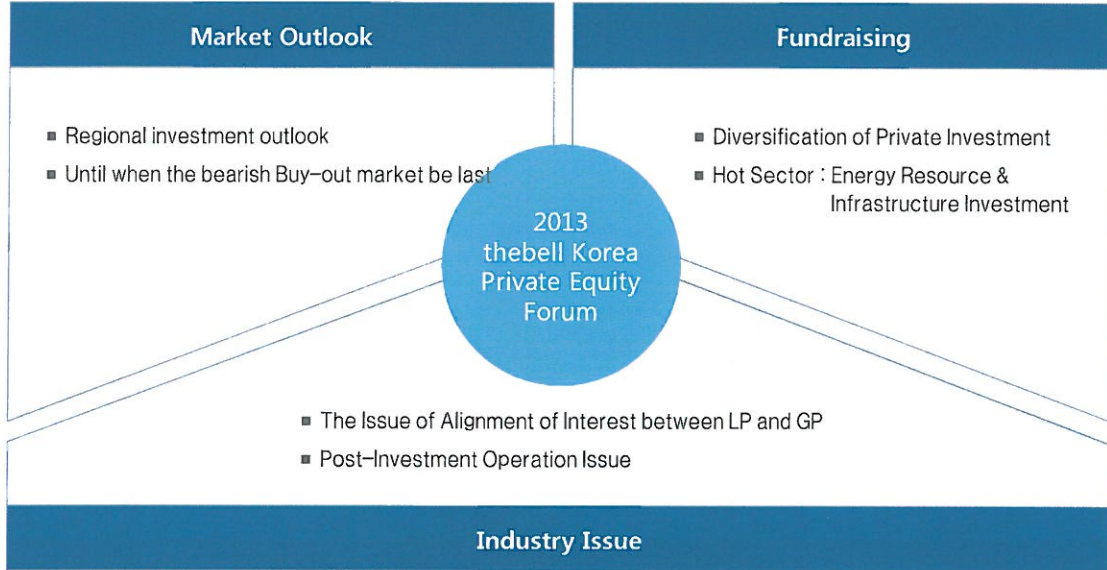
- ▶ 한국 PE 시장 규모는 약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
- ▶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약정액 40조 원 돌파 (2013년 8월 말 기준)
- ▶ 시장 성숙에 따른 LP-GP 간 이해합일 이슈 확대
- ▶ 투자 후 경영관리의 중요성 증대

세부적 방향성 및 구체적 결론 도출을 위한 아젠다 별 패널 토론 확대
친밀한 네트워킹 기회 제시 통한 이해 당사자간 교류 및 다양한 논의의 장 제공

2013 더벨 PE 포럼은 한국 PE 시장 내 주요 이슈 논의를 통해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The Issue of Alignment of Interests
- Post-Investment Operation Issue 등

2013 더벨 PE 포럼은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별 Agenda를 도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수행할 것입니다.



2013 더벨 PE 포럼의 각 카테고리 별 세부 Agenda는 다음과 같습니다.

[Detailed Agenda of 2013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

Market Outlook	Fundraising	Domestic Iss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ional investment outlo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investing in China still convincing - Expected consequence on private equity fund by credit crisis of emerging markets - Investment in European and American markets ■ Until when the bearish Buy-out market be l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latest trend for non-conventional investment - Continuance of the boom in Private Debt and Secondary invest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versification of Private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vesting on Private Debt - Secondary Investment - Co-investment: Is it effective for Korean LPs? ■ Hot Sector : Energy Resource & Infrastructure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vesting on fund or project directly : Which one is more effective? - Shale Energy revolution: if there is an investment opportunity on 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ssue of Alignment of Interest between LP and 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 commitment: Validity of the GP commitment - What is the desirable fee structure ■ Post-Investment Operation Iss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should the operation of business be managed after buy-out? - The method and limitation of participating in management for the fund investing on the minority share

Diversification of the Private Market Investment

시간	장소	TOPICS	SPEAKER / PANELIST	
09:00 ~ 09:30		등록 및 환영		
09:30 ~ 09:40		환영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09:40 ~ 09:50		격려사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CEO)	
09:50 ~ 10:10		기조연설 "투자 다변화"	이동익 한국투자공사 전무(CIO)	
10:10 ~ 11:10	main	* 지역별 투자 전망은 - 중국 기업 투자 아직도 유효한가 : 성장성 엑시트 문제 등 - 인도 등 이머징 아시아 국가의 신용위기가 사모투자에 미칠 영향은? - 유럽 및 미국기업 투자 : 한국 대기업과의 Alliance 전략의 유효성	SPEECH: Goocheon Kwon Managing Director, Goldman Sachs PANELIST: Jinguon Kim Partner & Managing Director, TPG Capital Boris Bong Managing Director, J.P. Morgan Asset Management Kingsley Chan Managing Director, MorganStanley Private Equity Asia MODERATOR: Goocheon Kwon Managing Director, Goldman Sachs	
11:10 ~ 11:20	Outlook	coffee break (장내정리 등)		
11:20 ~ 12:20		* 바이아웃 시장의 퇴조 언제까지 이어질까 - Non conventional Investment 최근 트렌드는? - Private Debt과 Secondary 투자 열기 계속될까	PANELIST: Soomin Kim Partner & Head of Korea, Unison Capital Hamilton Lane Sander van Maanen Partner & Head of HK, Alpinvest David Seex Managing Director & Head of Asia Pacific, Adveq Management MODERATOR: Wonpyo Choi Partner, Bain & Company	
12:20 ~ 14:00	main	중식		
14:00 ~ 14:50	main	Special Talk (대담): '효과적인 해외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윤표 국민연금공단 해외대체실장 구성훈 삼성생명 전무 박민호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CIO) 정삼영 통아일랜드대 교수	
14:50 ~ 15:00		Coffee Break (장내정리 등)		
15:00 ~ 16:10		* Diversification of Private Investment - Private Debt 투자 - Secondary 투자 : 아직도 투자 기회는 열려 있는가 - Co-Investment : 한국 LP들에게도 유효한 전략인가	PANELIST: FT Chong Managing Director, Pinebridge Investment Corentine Du Roy Principal, HarbourVest Partners Alex Wilmerding Principal, Pantheon Ventures MODERATOR: Charles Huh Senior Managing Director, CVC Capital Partners	
16:10 ~ 16:20	section A	Fundraising	Coffee Break (장내정리 등)	
16:20 ~ 17:30		* Hot Sector : Energy Resource & Infrastructure Investment - 펀드를 통한 것인가,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 Shale Energy revolution ; PE를 통한 투자기회는 있는가	PANELIST: Jim Gasperoni Partner, FLAG Capital Jonghoon Kim Partner, EQ Partners 백종렬 LG상사 전략기획팀장 David Scaysbrook head of the Clean Energy & Infrastructure, Capital Dynamics MODERATOR: Heejun Park CEO, Energy Innovation Partners	
15:00 ~ 16:10	section B	Industry Issues	* LP-GP 이해합일(Alignment of Interest) 이슈 - GP commitment : 킨먼 commitment의 유효성 및 킨먼 이직과의 상관관계 - 바람직한 보수(fee) 구조는?	SPEECH: KY Tang Managing Partner, Affinity Equity Partners PANELIST: 양영식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실장 서종균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장 신재하 보고펀드 파트너 MODERATOR: Alex Yang Attorney, Kim&Chang
16:10 ~ 16:20		Coffee Break (장내정리 등)		
16:20 ~ 17:30		* 투자 후 경영관리(Operation) - 바이아웃 후 경영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CEO 시장이 없는 한국에서의 대안은? - 소수지분 투자한 펀드의 경영참여의 방법과 한계	PANELIST: 윤종하 Partner & Head of Korea, MBK Partners 김영호 Managing Director, IMM Private Equity Jay Kim Managing Director, Alvarez & Marsal MODERATOR: 박재용 Executive Vice President, Nemo Partners SCG	
17:30 ~ 18:30	main	COCKTAIL PARTY		
18:30 ~		DINNER SESSION		

* 본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 1인당 50만 원 (VAT별도)

- 전 컨퍼런스 참관 가능, 중식 및 스탠딩 각테일 파티 포함 (단, 디너세션은 별도 초청자에 한함)
- 면제 대상자 : 연기금, 공제회,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 / 정부기관 관계자 / 스폰서십 제공사
- 디너세션 참가비 : 1인당 100만 원 (VAT별도) (포럼 참가비 면제 대상자의 경우, 디너세션 참가비 면제)
- 신청 방법 : 더벨 PE 포럼 홈페이지 (<http://link.thebell.co.kr/peforum2013>) 접속 (11월 18일 오픈 예정)
 > 2013 thebell Korea Private Equity Forum 팝업창 클릭 > 참가신청 > 결제방법 선택 후 카드 혹은 현금결제
- 카드결제 : 포럼 홈페이지에서 결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현금결제 : 당사계좌 (주더벨 국민은행 870301-04-024462)로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 신청여부는 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동 등록)

1 on 1 Meeting 신청

Time	Am.9~Am.10	Am.10~Am.11	Am.11~Am.12	Pm.2~Pm.3
미팅 대상자 (부서 / 회사)	e.g.) 해외투자실 / NPS			

- 더벨 M&A팀 이재영 기자 (jaeyounglee@mt.co.kr) 에게 개별 신청
- 1 on 1 미팅은 스폰서십 제공사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타 문의 및 협조 사항은 더벨 M&A팀으로 문의바랍니다.

Contact Information

Jang-ho Bae (Head of thebell M&A Team)
codablue@mt.co.kr

Jay Lee (Journalist of thebell M&A Team)
jaeyounglee@mt.co.kr / C.P +82 10 9510 5015